

LX “데이터 · 플랫폼 전문으로 거듭날 것”

데이터팀 · SOC 디지털화 방점... 한국판 뉴딜 성과 기여 김정렬 사장 “올해는 디지털트윈 활용모델 확대 변곡점”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로 디지털 혁신이 강조될 것이다. LX가 그동안 지적 · 공간정보 서비스 기관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 · 플랫폼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

취임 6개월을 넘긴 LX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이 6일 세종 국토교통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이 밝혔다. LX의 내부 역량을 외부 변화에 맞춰 혁신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혁신의 파장은 조직 개편에서 가장 먼저 감지됐다. 공간정보실 내에 디지털트윈사업단, 지하정보사업부, 드론융합부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지적재조사 인력까지 추가 증원했다. 이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트윈, 데이터 팀, 국민 안전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LX는 무엇보다 공간정보의 원활한 수집, 품질관리, 개방을 위한 법 · 제도적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를 제안한다. 데이터팀,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 분야의 신산업을 재정적하고 데이터 수

집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트윈 활용모델’ 확산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해다. LX는 2018년부터 전주시 전역(206㎢)에 추진해온 ‘천만그루 나무심기 입지 분석’, ‘음식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등 디지털트윈 활용모델의 서비스를 확산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 사례로 만들 복안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디지털트윈의 개념이 다양한 데다 LX가 디지털트윈 서비스에 필요한 각종 행정데이터 등을 넘겨받을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LX는 전주시가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 제정함으로써 관련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LX는 ‘한국형 자치단체 디지털트윈 활용모델 프로세스’를 전국에 확대하기 위하여 특화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X는 또한 디지털트윈 등이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관리체계를 개편해 데이터



김정렬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6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팀의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본사는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으로, 지역본부 · 지사는 지역 데이터 센터와 신산업을 실행하는 조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하정보 전담기구로 지정된 LX는 상하수도 · 가스 등 지하정보 15종을 통합한 3차원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하고 있다. 지하안전법에는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전에 이 통합 지도를 활용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도록 명시가 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33개 시 지자체와 전국 민간 지하구(통신구 · 전력구)를 대상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하며, 올해부터 민간이 관리해온 전국 송유관(1104km)도 2D · 3D 정보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화로 위험성이 있는 특수지하시설물(스팀관, 화학관, 가스관 등)을 공간정보화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공공 분야 드론 전문 교육기관인 LX

는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국내 드론 제조 기업을 육성하고 드론 조종 및 영상관측 교육을 진행하며 드론활용센터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드론을 지적측량에 활용하기 위한 법 · 제도적 개선체계를 지원하는 한편 국토조사에 특화된 LX 드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LX의 핵심 사업이었던 지적사업도 디지털 혁신을 앞둔다. 토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활용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 행정을 지원하는 국토이용현황조사 추진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적재조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전문성 강화에 집중한다.

더 나아가 올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적재조사 책임 수행기관인 LX는 민간과 공명이행방식으로 추진해 민간의 참여율을 더욱 높임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정렬 사장은 “LX가 갖는 장점이 무엇이고 국민이 LX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 질문함으로써 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과 편익에 기여하는 데이터 · 플랫폼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자산관리서비스 ‘고객 중심으로’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방카클럽 발대식 개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6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관내 영업점 방카매니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자산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2021년도 방카클럽 발대식’을 개최했다.

방카클럽은 영업점 방카슈랑스 업무담당자들이 클럽활동을 통해 핵심 방카매니저로의 성장을 도모해 방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멘토 · 멘티 중심의 코칭형 상호 학습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발대식과 함께 ‘2021년도 2/4분기 방카 현장교육’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했다. 교육에는 4개 보험사 담당자가 강사로 초빙돼 고객들의 자산관리 트렌드와 세금관련 방향 등 자산포트폴리오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윤상 기자

“지금은 배나무 꽃 인공수분 작업 중”



6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시험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배나무 꽃 인공수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함께하는 100년 농협 비전 실현... 남원에서 ‘상생정담’

신규전략 품목 육성 성공 도모 사인머스켓 농가 육성 통한 포도 사업 연계 시너지 창출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권오정)는 6일, 남원시와 ‘남원시 신규전략품목 육성선포식’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생정담을 가졌다.

이날 정담에는 이환주 남원시장, 정재호 농협 전북지역본부장, 권오정 남원시지부장, 남원시 관내 농 · 축협 조합장, 남원시조공법인대표, 농협 유관단체장, 사인머스켓 공신회 회장 등이 참석, 남원시와 농협의 상생발전을 응원하고 지지했다.

농협의 이번 상생정담은 남원시 대표 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작물 장려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협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소득작물 및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테스타베드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특히, 남원시 8대 전략품목 중 하나인 사인머스켓 농가의 육성을 통해 포도 사업과 연계해 남원시만의 특별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남원관내 포도농가의 집중출하 후 사인머스켓 출하를 도모해 소비자에게 남원포도의 브랜드 파워를 자연스럽게 연계시킨다는 전략이며, 이



농협 남원시지부는 6일, 남원시와 ‘남원시 신규전략품목 육성선포식’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생정담을 가졌다.

를 바탕으로 남원시 농산물 브랜드 홍보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전반적인 농산물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환주 시장은 “이번 상생정담은 남원시 주요 농업정책 중 하나인 특화품목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일맥상통 한다.”며, “앞으로도 농협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한 동반성장을 통해 남원시만의 특별한 특화품목을 육성하여 남원시 공동브랜드 ‘춘향팥’을 활성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재호 본부장은 “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에서 남원시와 함께 노력하고, 남원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을 통해 ‘함께하는 100년 농협’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서부산림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완료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2021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군산시를 포함한 10개 시 · 군 지역에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제기간(1월~3월)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서식하거나 산란의 우려가 있는 소나무류 총 1만9,188본을 벌채하고, 벌채목과 산물은 수집해 훈증, 그물망, 피복, 파쇄 작업을 통해 방제했다.

조준규 서부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6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연천관에서 허태웅 농촌진흥청장과 참석자들이 ‘치유농업추진단 헌관식’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치유농업 조기 확산 ‘앞장’

농진청, ‘치유농업추진단’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치유농업의 조기 확산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담 조직인 ‘치유농업추진단’을 5일자로 신설했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 · 농촌자원을 활용하고,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치유농업추진단은 지난 3월 25일자로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치유농업법)’에 따라 치유농업 서비스 지원 체계화, 농업 · 농촌의 다양한 치유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치유농업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전담하게 된다.

치유농업추진단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실용화 ▲치유농업

보급 · 확산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치유농업 기반구축을 위해 치유농업사 양성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치유농업시설 품질관리를 하는 등 제도 정비와 한국형 치유농업의 방향 제시 및 산업화 전략 등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치유농업 자원을 발굴하고, 과학적 효과성을 검증해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치유농업 실용화를 추진한다.

치유농업 보급 · 확산을 위해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장을 육성하고, 치유농장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별 치유농업센터 조성도 추진한다.

그밖에 치유농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공급자간의 체계적인 지원과 품질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도 담당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고산농협, 지도사업

종합평가서 농촌형농협 1위

전북농협(본부장 정호)은 6일 ‘2020년도 농 · 축협 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 사무소로 선정된 임주군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석)에 표창패를 수여했다.

지도사업 종합평가는 전국의 농 · 축협을 대상으로 영농 · 복지지원과 지도사업 인프라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마련 등을 계량화 평가하고 농업인의 실익증진과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우수 농 · 축협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정재호 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고산농협 임직원이 합심해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영농지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영농지도 · 지원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실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신협 해외 체크카드 6종 선보여

국내외 Visa 가맹점서 사용 가능

이제 신협 체크카드 한 장이면 해외 직구는 물론 해외 현지 결제 및 ATM 이용까지 가능해진다.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국내외 비자(Visa)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 6종을 선보인다.

기존 신협 체크카드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6종에 해외 결제 기능을 더한 것으로, 개인카드 4종과 법인카드 2종으로 구성됐다. 전 가맹점 최대 0.6% 캐시백으로 가성비를 높인 ‘CUbig SIMPLE’을 비롯해 ‘CUbig PAY v2’, ‘어부바 v1’, ‘어부바 v2’ (이상 개인카드)와 ‘CU biz’ 캐시백 및 CU Family형(이상 법인카드)이다.

별도 연회비 없이 온 · 오프라인 해외 결제, CD 및 ATM을 통한 입 · 출금이 가능하며, 인근 지역신협 및 모바일 플랫폼 ‘온(ON)뱅크’에서 간편히 발급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 생진원, 산자부 스마트특성화 기반 신규 최종 선정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생진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스마트특성화기반 구축사업에 공모한 ‘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스마트특성화기반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진원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2021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91억원(국비 60억원, 지방비 26억원, 현물 4.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한다.

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용화 지원사

업은 전북도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스마트팜 작물, 특화자원 및 발효미생물을 융합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를 지원함으로써 전북형 감소 기업 육성 및 바이오 · 식품산업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생진원을 포함한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전북대학교는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시설 · 설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시제품 고급화지원, 세포 · 동물 효능평가, 마이크로바이옴분석, 간이독성평가, 품질분석 및 전문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